

특집 /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

방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와 역할

● 郭相瓊 / 高麗大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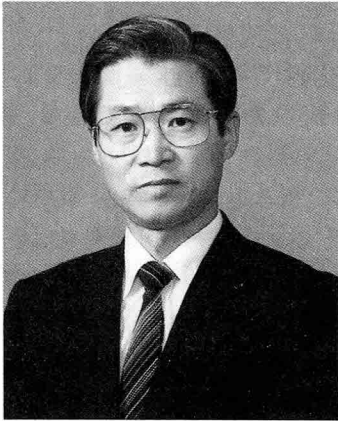
방위산업은 자주국방 확립에 기초가 되며, 산업연관효과가 크다. 기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민간산업에 활용되며,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고도화와 완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입대체 및 수출에서의 외화획득과 절약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내 고용의 확대효과도 병행될 수 있다. 방위산업 수준의 향상은 國力의 상징으로서 국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한편, 해외로부터 능력과 기술수준을 인정받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와 통일추구의 물결속에서 혼란과 분열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國基를 흔들어 놓고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한편 무력남침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여 손아귀에 넣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김일성은 좋은 기회를 맞아 한국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좌경세력이 날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에서 미군철수가 공공연히 요구되고 있고, 군축이 주장되고 있는 현상황을 십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북한 공산집단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럴때 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가지 대처중에서도 국방에 관한 대처만은 더욱 더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國防이라는 안보는 한나라의 국토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임무요, 책임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



부담이나 모험을 감수하는 정책변화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안보에 차질이 생기면 전부를 잃게 되기 때문에 국방은 철두철미하며, 절대불가결이라야 한다.

국방에 대한 비용은 전부를 송두리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필요한 안보에 대한 保險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보험은 비용만 발생하고 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국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방을 철저히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을 막으면 국방보험은 보험으로만 끝날 것이다. 보험이 중단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일 것이다.

6·25 공산침략이후 우리나라의 국방은 미국에게 의존해 왔다. 중차대한 사항인 국방이 다른나라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경제적 국력신장이 지속되는 만큼 의존적 국방에서 탈피하여 자주국방을 확립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공업화 특히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발전,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그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생산지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방위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이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방위산업도 필요하고 또 중요시 되어야 한다.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자주국방 수단으로서 단순하게 육성 발전되는 방위산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객관적인 경제성을 갖추고 수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일반산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수도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와 역할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첫째, 自主國防 확립에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에 맞는 군수품과 무기를 제때에 제대로 공급할수 있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할수 있는 방법을 갖추게 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은 자주국방을 확립시키는 직접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완전한 자주국방의 길을 트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주국방의 확립은 우리 스스로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유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데 보험과 같은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산업연관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과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등 일련의 사태를 감안하여 1970년대 초에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때에는 경제발전단계와 전략상 중화학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되어 있었다.

정부가 공업구조의 근대화로서 중화학공업 발전을 정책으로 내세울 때에 방위산업도 육

성발전시키고자 하였으므로 방위산업의 중화학공업과의 산업연관효과는 생산에서의 연관효과 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부터 연관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투자효율도 병행하여 가져올수 있었던 것이다.

산업연관효과의 전형적인 형태는 방위산업 육성발전에 따라 일반 민간산업이 판로확대의 이득을 볼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하면서 민간산업활동도 동시에 하는 효과를 가질수 있다.

방위산업에 투입되는 타산업의 제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보안상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수치로 위증할 수는 없으나 일반산업의 연관효과로 유추해서 볼때 방위산업의 산업연관효과도 크다고 할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시작하면 低需要, 低技術, 經驗부족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방위산업은 일반 민간기업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효과가 지속되며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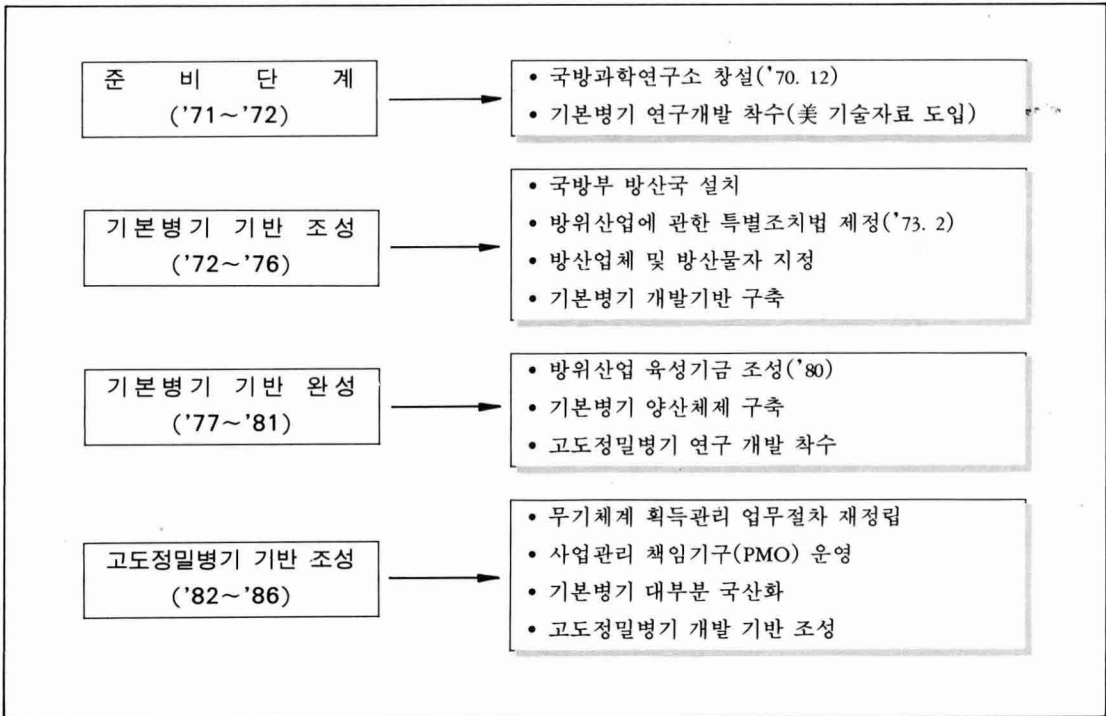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산업이란 발전하면 할수록 연관효과도 더욱 더 깊어지고 높아질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기술발전과 移轉효과를 가져왔다

방위산업 제품은 정확성, 정밀성, 適期공급 및 효율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이다. 실수란 있을수 없고, 있으면 이에 따른 희생과 손실이 너무나 큰 것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다. 성능과 정확성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이 빨라진다.

방위산업에서 개발되어 시험된 기술중 類似하거나 移轉이 가능한 것은 민간산업에 활용될수 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은 민간산업에 이전되어 왔다. 민간산업으로서는 방위산업의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크나큰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단계



이익을 얻을수 있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소련, 중국등 많은 국가에서 방위산업 제품생산에서 이전된 고도의 기술이 민간산업에 활용되어,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특히 첨단기술의 개발과 응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전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예로써 항공산업을 들수 있다. 이 산업은 어쩌면 우리에게 대단한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분야이기도 한다.

넷째, 산업발전을 가져왔다

기존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나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데는 모험과 위험 그리고 이윤보장의 어려움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에서 산업을 전략적으로 개발(Initiate)하며 발전시키게 되므로, 민간차원에서 할수 없는 산업을 할수 있게 한다.

방위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방위산업과 연관하여 필요한 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업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방위산업 육성발전 때문에 생겨나는 산업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업체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고 유익하며 개발해야할 산업 또는 업체를 국가가 방위산업 육성발전과정으로 하여 국가경제의 고도화와 완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수지 안정화에 기여할수 있다

국방은 필수불가결의 주어진 국가적 과제이며, 확고히 해야 한다. 또 이에 필요한 군수품과 무기는 일정한 양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한 군수품과 무기는 수입에 대체되므로 외화를 절약하게 된다.

보안상 정확한 자료를 밝힐수는 없으나, 이

러한 외화절약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수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앞으로 보다 高價의 무기와 군수품을 수입대체하게 되면 그 기여는 더욱 커질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방위산업제품의 수출도 국제수지 안정화에 미력이나마 기여할수 있다. 특히 앞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수출전략제품을 독자개발하여 수출물량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국제수지 안정에 대한 기여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화절약이라기 보다 산업고도화의 결과로써 실현되는 외화절약이라는 점에서 의의와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여섯째, 고용효과등 기타 경제적 효과와 기여가 있다

수입대체와 수출에서의 외화획득과 절약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내고용의 확대효과도 병행될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위산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와 역할외에도 방위산업 수준의 향상이 대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국력의 상징으로서 국민에게 사기와 용기 및 긍지를 심어주고 해외로부터 수준을 인정받는 효과등 간접적인 면도 생각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방위산업이 개선해야할 문제점도 없지 않다. 현재 낮은 가동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원의 효율면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고, 독자적인 연구개발(R & D) 및 생산능력의 부족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앞으로 더욱 더 크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신장하고, 그 결과로서 가동율 상승, 규모의 경제, 생산비 인하 및 재투자 확대를 통한 발전의 가속화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민간산업과 같이 유리하게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다. *